

[ 사회 ]

# ‘수학여행 버스 참사’ 이유 있었네

## 3년동안 605차례 차령 위·변조 광주지검, 업체 대표 19명 입건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여행사와 전세버스 회사들이 노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위·변조해 초·중·고교의 소풍·수학여행 차량으로 제공해 온 사실(본보 4월 28일자 7면)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8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위·변조해 소풍·수학여행 차량으로 제공한 여행사와 전세버스 회사 등 30개 업체를 적발, 화순 소재 모 관광회사 대표이사 류모(44)씨 등 20개 업체 대표 19명을 공문서변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0개 업체는 위·변조 횟수가 적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06년 3월 광주 모 중학교 수학여행에 필요한 버스 8대를 공급하면서 연식이

2001~2002년인 버스 3대의 자동차등록증을 출고된 지 1년밖에 안된 새 차인 것처럼 변조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의 회사는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버스 31대의 차량등록증을 56차례에 걸쳐 변조해 240차례 사용했다.

검찰에 적발된 업체들은 적게는 4~5대, 많게는 20~30대에 이르는 차량의 연식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들은 최근 3년간(2006~2008년) 버스 158대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605차례나 위·변조해 광주 시내 152개 학교의 입학에 참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학여행 입찰 때 학교 측이 최근 3~5년 미만의 최신형 버스를 요구하는 반면, 여행사나 전세버스 회사들은 수학여행 등이 특정 기

간에 집중돼 신형 버스 확보가 곤란하게 되자 이 같은 변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7일 제주에서 발생한 순천 효천교 수학여행 참사도 사고 버스의 차량등록증의 차량 연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등록증 위·변조 수사를 전국에 확대해 줄 것을 대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광주지역 268개 초·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 동안 소풍·수학여행과 관련한 위탁운영업체 계약 서류와 당시 사용됐던 관광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양부남 부장검사는 “상당수 업체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신뢰성과 안전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수송용 차량 공문서를 변조한 것은 사회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최고 160mm 비

## 22일까지 비 계속...곳곳 호우주의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지난 17일 오후부터 최고 16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휴일인 2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경지 침수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부터 내린 비는 18일 오후 6시 현재 해남군 북일면 157.5mm를 최고로 구례군 피아골 143mm, 여수시 초도리 136mm, 강진군 127.5mm, 보성군 127mm, 광주시 78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 해남을 비롯 곡성, 구례 등 전남 곳곳에 지난 17일 밤 9시께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여수·영광·흑산도·홍도에는 강풍주의보, 서해남부·남해서부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풍랑주의보도 19일 오전까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19일 오전까지 최고 60mm가 더 온 뒤 20일부터 휴일인 22일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광주·전남 지역별 강수량 (18일 오후 6시 현재)

지역	강수량(mm)	지역	강수량(mm)
광주	78	무안	106
해남북일	157.5	순천	104
구례피아골	143	진도고군	97.5
여수초도	136	함평	96
화순이랑	132	정흥	93.5
강진	127.5	구례	90.5
보성	127	나주	88
완도	126	영암	81
목포	108	고흥	55

**숨고르는 장마** 6월 19일 (음 5월 16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온 후 온에 개겠다.

◇전국날씨

광주	흐린 후 오전에 겹	19~28°C
목포	비 후 오전에 겹	19~24°C
여수	비 후 낮에 겹	20~25°C
완도	비 후 오전에 겹	20~25°C
구례	비 후 오전에 겹	20~29°C
해남	비 후 오전에 겹	20~26°C
남원	비 후 낮에 겹	20~26°C
고흥	비 후 오전에 겹	20~27°C
순천	비 후 오전에 겹	19~28°C
영암	구름 많음	18~26°C
진도	비 후 오전에 겹	20~26°C
남원	구름 많음	20~27°C
남원	비 후 오전에 겹	19~27°C
흑산도	비 후 오전에 겹	17~21°C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3.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북서풍 파고 1.0~3.0m  
만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4.0m

목포 밀물 < 02:41 썰물 < 08:02  
14:19 밀물 < 19:42  
여수 밀물 < 09:06 썰물 < 15:06  
21:55

▲해돋이 05:18 ▲해질 19:50 ▲달돋이 20:34 ▲달질 05:13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날씨						
최저/최고	19/28	20/27	20/25	20/28	19/29	19/29

# 광주 무균성 뇌수막염 급속 확산

## 바이러스 검출율 49%...두달전보다 5배

광주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무균성 뇌수막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이달 들어 광주지역 소아과를 찾은 어린이들의 가검물 41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8.8%인 20건에서 무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가 검출됐다. 이같은 검출율은 지난 4월 10%(10건 중 1건), 5월의 36.4%(22건 중 8건)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질병관리본부 등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자료에 따르면 무균성 뇌수막염이 지난 1999년, 2002년, 2005년 등 3년 주기로 크게 번지고 있어 올해 또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도 18일 소아전염병 표본감시 및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 결과 ‘무균성 뇌수막염’의 유행이 우려된다고 각별한 주

의를 당부했다.

무균성 뇌수막염은 세균성과 달리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을 일으켜 발열과 두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무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양해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돼 있지 않다”며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침수 예방 빗속 작업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광주시 북구 각화동 제2순환도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공사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 로스쿨 경쟁률 예상보다 낮을 듯

## 광주·전남 275명 지원

내년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쟁률이 예상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로스쿨 입학에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법학적시험(LEET) 접수자가 적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6시까지 LEET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9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만5천명보다 적은 수치다. 내년 로스쿨 입학 정원(2천명)을 기준으로 한 예상 경쟁률은 5.48대 1이다. 하지만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거

나, 시험을 치르지도 로스쿨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경쟁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 지구별 지원자는 광주·전남 275명(2.5%)을 포함해 ▲서울 8천314명(75.9%) ▲부산 673명(6.1%) ▲수원 531명(4.8%) ▲대구 469명(4.3%) ▲대전 407명(3.7%) 등이었다.

남성이 6천970명으로 여성(3천99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공 계열별로는 법학이 3천488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 1천656명(15.2%), 상경 1천593명(14.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

# 의·치의학대학원 경쟁률 3.75 대 1

2009학년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의·치의학교육입문점사협의회는 지난 13일 2009학년도 의·치의학교육 입문점사(MEET·DEET)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의학계열 6천2천590명이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학년도 모집 정원 대비 경쟁률은 의학계열이 3.75대 1, 치의학계열이 4.57대 1이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의학 4.7대 1·치의학 5.3대 1)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의·치의학을 합쳐 지역별 지원자는 광주 288명(3.3%)을 비롯, ▲서울 6천465명(75.3%) ▲부산 830명(9.7%) ▲대구 499명(5.8%) ▲대전 252명(2.9%)이었다.

의학의 경우 여성 지원자가 3천447명(55.9%)으로, 치의학은 남성이 1천408명(58%)으로 각각 더 많았다.

전공별로는 의학에서는 생물학 관련이 2천255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치의학에서는 공대·자연대가 1천18명(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성필기자 camus@

# 진지한 책과 멀어진 서울대생 대출 톱10 모두 소설·에세이

‘진지한 독서’를 멀리하는 최근 대학가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울대생들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빌린 책 1~10위가 모두 소설이나 가벼운 에세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서별 대출 빈도를 집계한 결과 정신과 의사의 자중우물

치료 행각을 그린 일본의 코믹소설 ‘공중그네’(작가 오쿠다 히데오)가 110차례 대출돼 1위를 차지했다.

소설가 김훈의 ‘남한산성’은 대출 횟수 104회로 2위였으며 3~5위는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11분’(91회), 일본 작가 쓰쓰이 야스타카의 소설집 ‘시간을 달리는 소녀’(89회), 신경숙의 장편 소설 ‘리진’(87회) 등이었다.

11~20위 내에 포함된 비문학 도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12위),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14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15위) 등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보람상조와 함께 할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새가족을 모시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새가족 모집: 보람상조는 새가족을 모시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혜택: 새가족은 보람상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보람상조 고객센터 02-233-0100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법정사 극락전 납골당 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납골당: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2. 납골당: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3. 납골당: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문의처: 02-233-0100